

KB국민은행,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부금 4억원 전달

독립유공자·후손 생활안정과 '통일 염원의 동산' 조성 지원



허인(오른쪽) 은행장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4억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1월 16일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부금 4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시 중구 남산동 소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부금 4억원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생활안정지원과 장학금에 3억원, 독립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 조성 지원에 1억원이 쓰인다.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은 KB국민은행이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사회공헌사업이다. 3·1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함께 투옥됐던 유관순 열사 등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옥중가 가사에 새롭게 선율을 붙여 '대한이 살았다' 음원 및 기념 영상으로 일반에 공개된 것이 캠페인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는 정재일, 박정현, 김연아가 음원 및 기념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영상 공유 및 좋아요 이벤트를 통해 1

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3월 '3·1 독립선언광장' 건립에 1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는 정재일, 매드클라운, 가수 루나, 그래픽티아티스트 닌볼트가 음원과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영상 공유 및 좋아요 이벤트로 1억원을 적립해 독립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 조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이 살았다 통장' 발행 이벤트를 통해 1좌당 3천원씩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지원했다. '대한이 살았다' 통장 걸면은 지난 8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흥대 KB청춘마루 외벽의 대형 벽화에 그려진 '독립영웅 11인의 미소' 이미지로 제작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부금이 순국선열의 날에 전달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❶

국민인증서의 시대 KB모바일인증서로 열다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준비물: 본인명의휴대폰, 신분증

쉽고 빠르고 간편한 로그인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
한 번 발급만으로 갱신이나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 가능

폭넓게 활용하는 통합 인증서비스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와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활용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0-1863호(2020.09.16), 광고물 유효기간 2021.12.31까지